

豐 碑

제 97-100 호
2001

全州文化院

(文化觀光部 登錄番號 第 마-962號 登錄日字 1981. 8. 10 隔月發行 ISSN 1227-6952)

靈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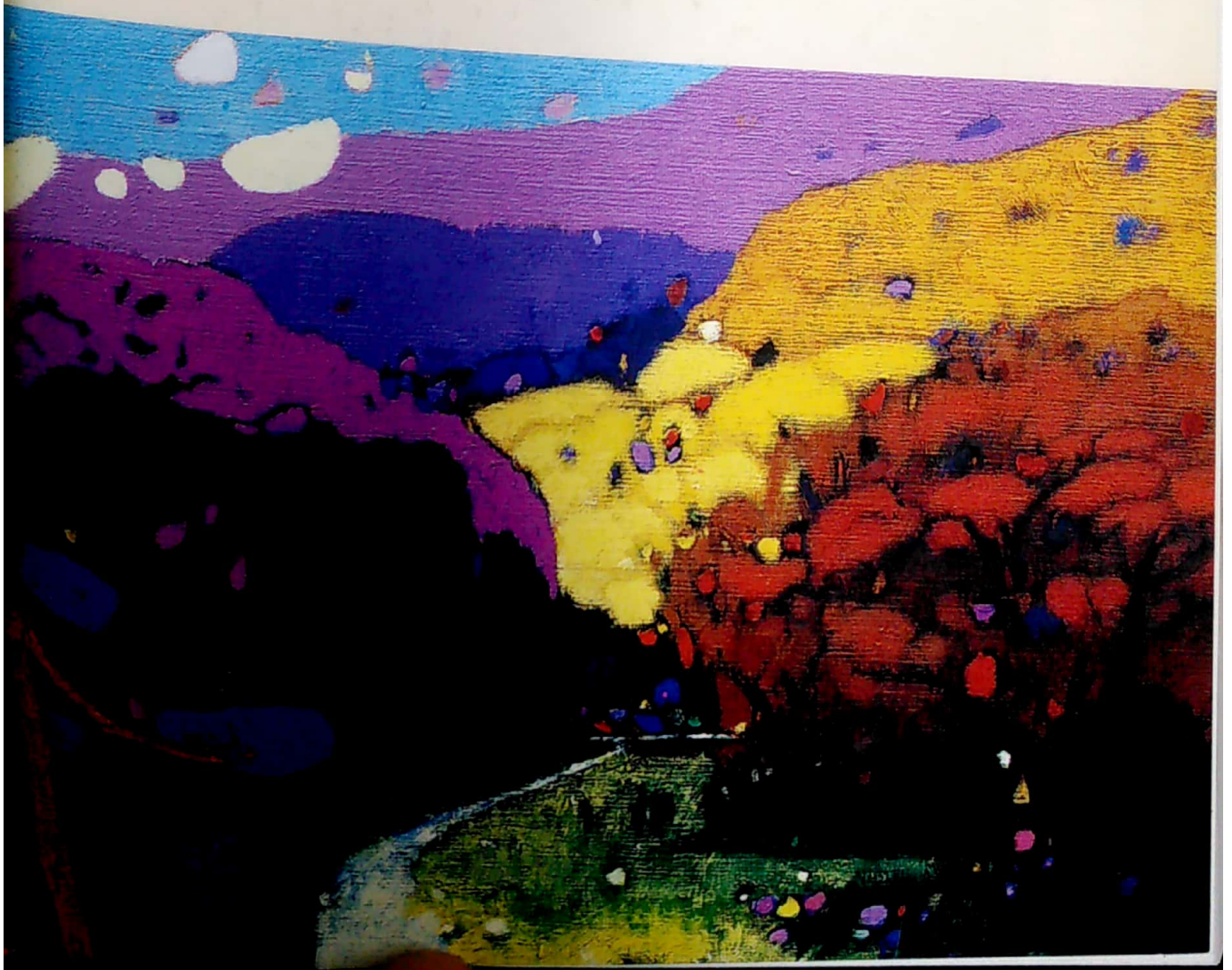
2001 지역 문화의 해

100 **2001**
겨울호

전주문화원

노령 100호 기념 2대 특집

내가 사랑하는 전주 · 전라북도
放談으로 엮어본 노령 100호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 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편 / 집 / 후 / 기

◇..... 100호 편집후기를 쓰자니 손이 떨리고 마음도 떨립니다. 지나온 22년의 세월에는 보람도 있었고 그 보람 밑바닥에는 많은 눈물도 있었습니다.

장명수 박사께서 창간한 『노령』에 개항 80년 낙수라는 수필을 쓴 인연으로 3호부터 편집위원으로 김남곤·문치상·서재균 씨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간으로, 오늘에는 편집인으로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감회가 깊습니다.

◇..... 실무를 함께 했던 조규화·유장우 편집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유장우 씨는 우리와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더더욱 간절하게 생각합니다. 명복을 빕니다. 조규화, 유장우 씨가 편집장으로 일해줄 때 나는 문화방송에 재직 중으로 점심시간, 토요일 오후, 때로는 퇴근시간 이후에 나와 일하므로 두 분의 사생활은 엉망이었을 텐데도 불평없이 따라준 그 봉사의 열정에 감사할 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 100호 기념 특집으로 『내가 사랑하는 전주·전라북도』를 묶느라고 그 동안 연재를 해 주신 귀한 옥고들을 다음호에 넘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깜박 잊고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담으로 엮어본 노령 100호에는 지난 22년의 숨김없는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더 많은 분을 모시는 자리가 되어야 했는데도 창간한 발행인·편집인 장명수 박사와 현재의 발행인과 편집인 그리고 편집위원만 모셨습니다.

◇..... 이번호 기획에 참여해 준 문치상 이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귀한 옥고를 보내주신 4500여 필진 제현과 초창기의 선명인쇄 그리고 오늘날의 신아출판사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 송 영 상 〉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위원회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叢 讀

발 행/全州文化院

비매품 · 2001년 겨울호(제100호)

인쇄/2001년 월 일 · 발행/2001년 12월 1일

발행인/金光鎬

편집인/宋榮相

인쇄인/徐錠歡

사무팀장/신 지 훈, 편집디자인/박 화 영문화관광부 등록

마-962호 · 등록일/1981년 8월 10일

561-812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35 한안과 빌딩 5층 ☎ (063) 288-7500 / 인쇄처 新亞出版社 ☎ (063) 275-4000

6 권두제언 | 지역인정 · 지역문화 · 지역정보의 표방

김광호

기획특집①

내가 사랑하는 전주 · 전라북도

- | | | |
|----|-----------------------|-----|
| 9 | - 월드컵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 | 김완주 |
| 15 | - 내가 전주를 사랑하는 이유 | 이호선 |
| 20 | - 넉넉하게 반겨주는 포근한 고향 | 임병찬 |
| 24 | - 젊음이 만드는 21세기 강한 전북 | 송창진 |
| 27 | - 마음의 평화를 안겨주는 고향 | 최공엽 |
| 32 | - 전주천과 담배와 | 정 양 |
| 38 | - 옛날의 명성을 되찾아 후손에게 | 윤대작 |
| 45 | - 전라북도는 전라북도(全羅福道) | 김순영 |
| 52 | - 전북의 자랑을 세계적인 자랑으로 | 서창훈 |
| 58 | - 若無湖南이면 是無湖南이다의... | 주명준 |
| 63 | - 제2의 고향 전주 · 전라북도 | 백낙천 |
| 68 | - 저항정신과 판소리문화의 자금 | 고민영 |
| 75 | - 내가 사랑하는 전주 · 전북의 미래 | 김종국 |
| 84 | - 그래도 사랑하는 내고향 전주 | 정희수 |

100호

2001 · 겨울호

題字 / 友山 宋河璟 表紙畫 / 김지현

- 93 - 고향 밖에서 본 고향 이야기 김보금
- 98 - 전주의 마을 만들기 이정덕
- 105 - 젊음이 만드는 21세기 강한 전북 김광순
- 110 - 전주 음식사랑 · 사람사랑 조법종
- 113 - 만경강은 성숙한 전북인의 기상 유동성
- 119 - 전주에 얽힌 나의 4가지 애환 김선남
- 124 -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북 · 아쉬운 문화의식 이태영
- 130 - 음식사랑이 대단한 전주사람 주종재
- 134 - 전주 약령시 부활 정현국
- 139 - 내가 전주를 사랑하는 이유 김상휘
- 146 - 산처럼 조용하고 겸손한 전주 정수만
- 154 - 사람이 좋다 입맛이 좋다 전주가 참 좋다 이광철
- 160 - 전주는 용비어천가의 발상지 송화섭
- 165 - 공동체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김성식

기획특집②

173 放談으로 엮어 본 蘆嶺 100號

204 편집후기

내가 사랑하는 전주

전주 음식사랑 · 사람사랑



조범중

우석대학교 교수 · 문학박사

필자의 부모님은 모두 황해도, 평안도 출신이시고 6·25 때 월남하시어 분단의 설움과 회한을 묻고 사시는 세칭 '이산가족 1세대' 이시다. 또 본인은 서울 태생이고 대학 진학 때까지는 서울권을 크게 벗어나보지 못한 데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약간의 식탐을 가진 전형적인 '서울 촌놈' 이었다. 그러다보니 필자는 어려서 만두국, 냉면, 녹두부침 등 잡곡류 중심의 이북 음식에 길들어 자랐다.

그런 필자가 전라도 땅 특히, 전주 땅을 처음 밟았던 것은 사학과 진학 후 유적답사를 호남지역으로 선정한 1982년 대학 3

학년 때였다. 1980년 갓 대학에 들어와 '서울의 봄'과 '광주사태'(당시에는 그렇게 불렀다)를 겪으며 그리고 대학 생활 중 데모주동의 선봉에서 명멸해간 호남 출신 동기 학우들을 통해 형성된 전라도에 대한 막연히 강하다라고 느낀 이미지는 현장 답사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경험으로 변화되었다.

2박 3일의 짧은 답사 기간 중 처음 들른 익산 미륵사지에서는 한참 발굴이 진행되고 있었고 탑 그림자에 비친 기념 사진을 통해 1500년 동안 누적된 전라도의 그윽함을 간직할 수 있었다. 그 분위기를 유지한 채 점심을 먹기 위해 들른 전주는 솔직히 조그마한 중소도시 이미지 그대로였다. 도청 옆 골목에 위치한 고풍스런 전주비빔밥집까지 버스를 몰고 들어갔다가 모든 길의 교통이 차단되는 상황을 해결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헤매다 들어간 식당이 현재는 문을 닫은 '중앙회관'이었다.

그때 받은 첫인상은 좁은 골목길에서 받은 불편함을 일순 잠재워준 뭐라 형용키 어려운 중후함과 고풍스러움이었다. 방마다 놓인 옛 생활 용품들과 벽에 적절한 위치와 크기로 자리잡은 글과 그림들은 이곳이 식당이라기보다는 생활사박물관 같은 분위기로 필자를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늦그릇에 소담히 담겨져 나온 비빔밥은 솔직히 서울에서 대충 흥내만 낸 비빔밥만 먹어봤던 필자에게는 감격 그 자체였다. 정갈하게 미리 비벼진 밥에 별도의 고명을 얹어 나온 비빔밥은 양 중심의 식사에 익숙한 필자에게는 주변 서화들과 함께 예술작품으로 보일 뿐이었다. 이때 각인된 전주비빔밥의 맛과 그 이미지는 지금도 필자의 뇌리에서 전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미지로 자리잡고 있다.

이후 필자는 다시 전라도권과는 큰 연관 없이 지내다 1988년 우석대학에 부임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때 비로소 전주의 속내를 접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필자가 전주 풍남동 은행나무골에서 하숙을 하며 접한 주인집 아주머니의 인상과 음식 솜씨는 앞서 비빔밥의 인상을 넘어 가히 환상이었다. KBS에서 치렀던 '장한 어머니상' 전라북도 대표로 나가시기도 하였던 주인집 아주머니의 음식 솜씨는 회식 때문에 저녁을 먹다가도 '하숙집에 가면 이것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라는 아쉬움을 줄 정도로 정갈하고 맛깔스런 솜씨를 보여주셨다. 더구나 그 푸근한 인정과 배려는 장모님으로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필자의 마음을 사로 잡아버렸다.

그리고 매주 주변 선생님들과 가진 '화주회' (화요일 술 먹는 날)는 술에는 별관심 없는 필자에게는 맛있는 음식먹는 날로 오랫동안 자리잡았다. 그때 주로 찾았던 음식점 중 전주천변의 오모가리집들은 아직도 그 아름다운 풍광 때문에 서울 손님들이 오면 꼭 찾게 되는 곳이다.

이렇게 형성된 전주에 대한 애착과 관심은 필자의 전공과 연결되어 전주권의 맛있는 음식문화가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을까로 연결되었고 지금도 그 과제를 풀기 위해 후백제에 대한 관심, 전주의 옛 유적들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확인된 것은 음식에 대한 관심은 이것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었으며 음식 사랑이 사람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靈齋**



내가 사랑하는 전주

음식 사랑이 대단한 전주사람



주종재

군산대학교 교수 · 이학박사

나는 전라북도를 정말로 사랑한다. 전주를 무척 사랑한다. 그렇다고 나의 고향이 전라북도는 아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순창이지만 세 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직장이 있는 수원으로 이사를 한 후 그곳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생활을 통해 순창이나 전라북도의 삶에 대해 내 머릿속에 각인된 것은 없다. 그렇지만 전라북도에 대해서 어린 나에게 쉽게 납득이 안가는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 집에는 유난히 손님이 많았었다. 낮에는 어머니 손님들 그리고 저녁에는 아버지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무슨 불일들이

그렇게 많은지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면 서너 번을 보게 된다. 그런데 그 볼일이라는 것이 우리 집 음식에 있는 것이었다. 사탕, 과자와 같은 것이 최고로 맛있는 먹을거리인 것으로만 생각하던 어린 나에게는 왜 사람들이 우리 집 음식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렇다고 우리 집이 잘살아서 고기반찬을 내어놓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또한 어머니는 설날, 추석 등 명절 때 순창에 들렀다 오면서 고추장, 각종 장아찌, 된장, 간장 등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손에 드실 정도로도 모자라 귀찮고 무겁다고 짜증내는 나에게까지 억지로 들려서 가져오게 하는 고집을 부리셨다. 보통 고향에 들어서 올 때 고향의 특산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순창의 장류를 가지고 오려는 어머니의 고집은 대단하셨다.

사람들이 우리 집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와 어머니가 꼭 순창의 장류를 음식에 사용하려는 이유를 알게 된 것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다. 그것은 물론 우리 집 음식이 전라도 음식이었던 것과 순창의 장류가 맛이 좋다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왜 순창의 장이 수원 외할머니 집 것보다 맛있는지를 물었다. 어머니는 난처한 얼굴을 하시면서 얼버무리셨다.

그 당시 어머니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나는 왜 순창의 장이 다른 것에 비해 유독 맛이 좋은지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게 되었고 훗날 내가 식품을 전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 장래를 결정지은 것이 순창의 장이었고 그 전공을 선택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고 있으며 아주 잘 선택

택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내 어찌 전라북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고향이 수원인 어머니가 전라도 음식을 제대로 해내기란 무척 어려웠다고 한다. 순창에 들르실 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할머니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더라도 맛은 같지가 않았다고 한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손맛의 차이라고 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으로 음식을 만들 때 기울이는 전라도 사람들의 깊은 정성을 꼽는다. 우리 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처녀 때부터 인정받았다고 한다. 식성이 조금은 까다로운 아버지가 어머니의 음식 솜씨에 반하여 결혼하였다고도 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결혼 후에 시댁인 순창에 가서 그리고 가는 길에 전주에 들러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의 음식 솜씨가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느끼게 되었고 전라도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한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음식에 정성을 들여야만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부터 음식에 대한 조금씩 알기 시작하였다고 말씀하신다.

10년 전에 군산대학교에 부임하게 되면서 무척 망설였다. 군산에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그나마 순창의 친척들도 대부분 오래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 전라북도가 나에게서 무척 낯선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곳에 적응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다. 바로 음식 때문이었다. 직장과 주위 환경은 낯설었지만 음식을 먹을 때는 전혀 이방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전라도 사람들조차도의



아해할 만큼 전라도 음식을 즐기고 또한 음식에 대한 평을 하였었다. 나를 이곳 생활에 쉽게 적응하게 만든 것이 음식이 된 셈이다. 게다가 나의 전공이 식품영양학이었던 관계로 자연스럽게 전라북도 음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맛의 비결이 어머니가 말씀하신 정성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렇다. 전라북도 사람들은 음식에 정말로 깊은 정성을 쏟는다. 특히, 전주 사람들의 음식 사랑은 대단한 것 같다. 내가 만난 음식업에 종사하는 몇몇 사람들은 전주 음식의 발전에 사명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만들어 손님에게 내어놓는다.

그런데 전라북도 사람들의 정성은 단지 음식에만 그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평범한 일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며 혼신을 다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많이 본다.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사는 그 자체가 나에게서는 기쁨이요 영광이다.

내 정성을 다하여 전라북도를 사랑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인 우리 나라 음식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전주를 사랑할 것이다. **薑 嶺**

내가 사랑하는 전주

사람이 좋다 입맛이 좋다 전주가 참 좋다



이 광 철

시민행동21 공동대표

요즘은 많이 사라진 풍경이 되었지만 30대 중반을 넘긴 대한
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 복무 시절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지역 연줄에 얽힌 에피소드 한둘쯤은 쉽게 풀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전라도 출신의 신병이 모진 경상도 고참을 만나 출창
깨지다가 제대한 고참의 뒤를 이은 전라도 동향 선배 덕에 그
때부터 국방부 시계가 잘 돌아가더라는..... 경상도 출신의 신
병이었다면 거꾸로의 상황도 가능할 이런 '야사' 류의 군대 체
험담을 듣고 있자면 우리 사회의 가장 질기고 오랜 문제인 지
역감정, 지역색이 정치에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심각한 낯빛이 될 수밖에 없다.

전라도 전주의 문화와 생활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정치를 고민해보자는 것은 아니므로 잠시 뒷배경이 되는 심각한 정치 문제를 떠나서 전국 팔도의 사내들이 모인 군대에서 사병의 출신지역을 단숨에 알아내는 비법 한 가지에 대해서만 잠깐 들어보기로 하자. 여러 지역판본이 따로 있지만 일단 전라도 판만 들어보자면, 전라도 고참이 자신의 애정과 신임을 받아갈 고향 후배를 골라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부동자 세로 떨고 있는 신병들 앞에서 갑자기 소리치는 것이다.

“지방 내 말이 떨어져블면 쟈싸게 벼랑뻘에 지대. 실시.”

얼빡하게 서 있던 신병들 사이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부리 나케 뛰어가 벽에 딱 붙어서는 친구가 진짜 전라도 출신이라는, 군대 시리즈의 한 토막은 지금 들어도 절로 웃음이 나온다.

사람들 입 사이에서 전해오는 군대 시리즈에서 전라도 친구들은 ‘동작 빠르고 눈치 좋으며, 상황에 잘 적응하는, 그래서 때론 얄밋고 처세가 좋은’ 캐릭터로 등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어느 지역 사람들의 특성을 몇 가지로 구분해 분류하는 것의 위험성이야 몇 번의 필화사건이 잘 말해주듯 매우 위험한 단정과 선입견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고의적인 왜곡과 폄하가 아니라면 그 지방 고유의 성정과 인심을 휘돌아 보고 인상을 기록하는 일을 크게 나무라거나 경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환경결정론까지는 아니어도 대체로 사람의 성격과 행동양식은 자신이 나고 자라온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

이 사실이다. 전라도에서 나고 자란 나 또한 보편적인 전라도인, 그 중에서도 수십 년을 살아온 전주 사람의 공통적인 특질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늘상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이웃들 또한 오갈데 없는 전주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통의 특질에 대해 서로 무관심하게 지나쳐 가는 경우가 많다. 남들은 차고 넘친다는 전주의 음식이 가진 고유의 '맛' 과 '멋' 도 생활이 되어서인지 그게 어떤 고유의 느낌인지,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얼마나 경쟁력 있는 것인지 실감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전주사람, 전주문화의 한편으로 질박하고 또다른 편으로 풍성한 성향은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이 지역의 물산(物産)과 역사에 힘입은 바 크다. 조선 왕조의 본향이고 곡창지대의 수부이긴 했지만 정치적 중심지로는 발돋움하지 못한 주변부의 한계와 조건을 고스란히 안고 전주는 500여 년을 보내왔다. 멀리로는 삼국시대의 백제로까지 연원을 되짚어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근현대사에서조차 전라도·전주는 정치적 소외의 반대편에서 예술적 기량을 남다르게 세워오면서 그 독특한 색깔을 담아온 것이다.

음식 맛만 해도 그렇다. 전주에 와서 아침에 콩나물국밥, 점심에 비빔밥, 저녁에 한정식 한 상 받지 못하면 전주를 제대로 보고 가지 못한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식 '맛' 은 어디에 내놓아도 뒤질 게 없는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전주 음식이다. 그런데 전주에서만 살 때는 다른 데 음식 맛도 다 그러려니, 마치 매일 숨쉬는 공기처럼 전주 음식의 참맛을 제대로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전주의 인상을 말할 때 맛갈스러운 음식을 제일로 내세우는 게 아닌가.

80년대 민주화운동이 한창일 때 당시 재야의 전국조직체 역할을 하던 민통련 전국 모임을 할 때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모임을 갖는 게 상례였다. 정보망이 날카로운 서울을 벗어나 회의를 가질 때면 특히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때아닌 망중환을 만난 듯 마음도 풀어지고 각 지역의 별미도 맛볼 수 있어 너무 좋다고들 했다.

그때 경향 각지에서 각자의 남다른 입맛을 갖고 모인 이 사람들이 가장 자주 오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이곳 전주였다. 호사스러운 식사만을 골라다니는 미식가들도 아니고 가장 평범한 하루 세 끼를 즐기는 '보통사람들'을 자처하던 그들에게 전주는 그야말로 진수성찬의 먹자판이요, 편안한 고향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대학가이든 시내이든 가리지 않고 호주머니 잔돈 몇 푼만 준비하면 흐뭇지게 한 상 차려주던 막걸리집에 그들은 너무 놀랐다. 막걸리 한 잔에 깍두기 한 접시를 '상식'으로 알았던 그들에게 갖가지 나물이며 해물, 고등어 조림, 썬 고구마에 번데기까지 얹어주는 인심에 감격한 그들과 밤새도록 토론을 벌이며 통음한 후 콩나물국밥집에 척하니 모셔가 모주 한 사발을 내밀면 것처럼 좋은 손님 접대가 따로 없다고들 했다. 점심을 무엇 먹을까 고민할 것도 없이 한 상 떡 벌어지게 차려주는 백반집에 가면 다들 내 지갑이 텅 빌까 걱정하는 눈치였다가 1인분에 삼천원이라는 말에는 '설마'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전주 사람들은 매일처럼 이렇게 먹고 살아 너무 좋겠다.”라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에 괜히 던지는 공치사인 줄 알았더니 웬걸, 전국을 돌며 팔도음식을 구경하다보니 그때의 칭찬들이 빈 말이 아닌 줄 그때서야 알 것 같았다. 고장마다 색다른 조리법이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먹고 사나 싶을 정도로 ‘맛’이 따라주지 않던 어디어디의 음식을 먹어보고서 나는 전주에 살고 있음에 정말 감사했다. 유럽이네 어디네 좋다는 외국을 다녀온 친구들 말도 그랬지만 한 달 남짓 혼자 훌쩍 떠난 인도 여행에서도 음식에 관한 한 전주가 세계 최고라는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런 푸짐한 밥상에서 얻은 생명으로 걸쭉한 입심이 힘을 얻어 전라도만의 그 구성진 소리가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어디 음식뿐인가. 80년대와 90년대를 이어가며 전국을 달구던 민주화투쟁의 한복판에서 전주·전라도는 음식맛 못지않은 자부심으로 타지 사람들을 압도하곤 했다. 이웃한 광주야 광주항쟁 직후의 일이라 남다른 결속과 자부심이 밖으로 퍼져 나왔지만 전주는 또 전주대로 사람들을 감탄케 하는 힘이 있었던 것이다.

그 살벌한 군사 독재의 폭압 속에서 아무도 공식적인 민주화 운동기구를 드러내지 않으려 할 때 전북이 전국 최초로 ‘전북 민주화운동협의회’를 발족시킴으로써 이후 전국적인 민주화운동 조직화에 불을 지폈다. 동학농민혁명의 유구한 전통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박정희 독재 이래 가장 완강하게 불의에 맞서온 개신교, 가톨릭 등 지역 종교인들의 헌신과 노력

에 더하여 청년들의 열정이 가장 드셨던 곳이 바로 이곳 전주였다.

당시 전국을 돌며 반군사독재 시위의 열기에 몸을 실어보았지만 내 고향 전주만큼 뜨겁게 한마음 되어 동참하고 격려하는 시민들이 많은 곳도 드물었다. “전주 사람들은 운동하기도 편하겠네.” 영남 친구가 푸념삼아 한 말이 있듯이 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민주화의 진전이 있다면 바로 내 이웃 전주 사람들, 전북 민중들의 피와 땀이 남달랐던 결과였다고 나는 늘 자부한다.

누구는 반골의 고장이라느니 예향이라느니 하지만 나는 매일처럼 먹고 마시는 전라도 음식, 전주의 맛 속에서 전주의 오랜 물산과 역사를 호흡한다. 정치적 소외 속에서도 끝내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도전을 계속해온 이 터전에서 살아온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도 ‘전라도·전주’가 살아 숨췄다. 내가 전주를 숨쉬고, 끝내 사투리를 버리지 못하는 내 속에도 전라도와 전주가 온전하게 들어 있다.

오늘도 난 친구들과 어울리고 난 뒤 끝에, 후르르 몰아넣는 콩나물국밥의 시원함과 정겨운 이웃들이 내지르는 구수한 사투리에 파묻혀 ‘좋은 게 좋은지도 잘 모름시롱’ 참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 또한 전주 사람으로 누리는 일상 속의 작지만 편안한 ‘복’ 이리라. **황영**